

# 산타클로스에 대한 교회사적 설명

라은성 교수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성은 언제든 틈만 있으면 역사나 문화 속에 드러난다. 가시적 우상이 아니더라도 불가시적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례가 언제든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등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성이 자리 잡았던 계몽

운동의 시대처럼 산타클로스가 대중적 인기를 통해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삼키고 상업인들이 가공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고객은 호객이 되어 그런 상술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글을 통해 산타클로스의 허상을 교회사적으로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 니콜라스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정체는 성자 니콜라스(Saint Nicholas)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실제 니콜라스는 4세기의 성자 니콜라스(270년 3월 15일 ~ 343년 12월 6일)를 일컫는 인물이다. 그는 소아시아 남부의 루치아(Lycia)에 있는 미라(Myra)라 불리는 지역에서 사역한 감독이었다. 흔히 미라의 니콜라스라 불린다.

그는 부유한 에피파니우스와 요하나라는 부부의 독자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유행병으로 양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줬기에 그는 많은 부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는 파타라(Patara) 감독인 니콜라스라는 삼촌의 보호 하에서 자랐다. 삼촌은 그에게 체발(머리를 깎음)을 받게 하여 교회의 낭독자로 임명했고 후에 사제가 되도록 했다.

305년 터키의 아나톨리아 출신 몇 명의 수도사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을 방문하다가 4세기 초에 순교한 게오르기오스(Georgios, 303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와 함께 사해 근처에 자그마한 수도원을 세웠다. 삼촌이며 감독 파타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니콜라스에게 교회를 담임하도록 했고 돌아온 후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312~315년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 방문의 꿈을 이루게 된 니콜라스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으로 방문하다가 게오르기오스를 기념하는 수도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몇 년을 보냈는데 오늘날에도 니콜라스가 거했던 수도원이 현존한다. 317년 고향 소아시아로 돌아왔고 미라에서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 된 니콜라스는 온정을 베푸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많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놀라운 니콜라스(Nicholas the Wonderworker)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 이유는 항해자, 상인, 궁술가, 회개하는 도둑, 어린이, 양조자, 전당포 및 학생의 후원자라 여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비밀적으로 선물을 안겨다 주는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산타클로스(Santa Claus), 즉 진터클라스(Sinterklaas)라 불리게 되었다. 누구든 자신의 일의 번영을 위해서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이 가공되어 덧붙여졌다.

가장 대표적인 소문은 양말을 걸어 놓고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세 딸을 둔 어느 가난한 자에게 큰 걱정이 있었다. 그들을 시집을 보낼 결혼 지참금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스는 어느 말 밤 굴뚝으로 금이 든 조그만 주머니를 몰래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지는 그 주머니가 걸려 있던 양말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양말은 젖은 것으로서 말리기 위해 화로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또 둘째 딸을 위해서도 니콜라스는 동일하게 금을 떨어뜨렸다. 이런 선물을 받게 된 세 딸을 둔 아버지는 누가 이런 귀한 선물을 떨어뜨렸는지 알기 위해 밤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툭인 니콜라스는 자신이 행한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는 관심을 받는 것을 니콜라스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식은 알려졌고 누군가가 모르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니콜라스가 틀림없다고 여길 정도의 입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자 니콜라스

이런 친절한 일로 인해 니콜라스는 성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자만 아니라 항해자들의 성자이기도 했다. 항해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터키 해안에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난 항해자들이 있었다. 폭풍이 너무나 심해서 누구도 그 죽음의 위기에 빠진 항해자들을 구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항해자들은 니콜라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니콜라스는 바다를 크게 꾸짖었고 폭풍은 잠잠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안전한 항구로 행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인해 항해자들의 성자로 입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에 의해 미라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검거되어 옥에 갇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수한 고문을 받았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함께 갇힌 자들을 위로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니콜라스는 석방되어 자신의 목회지로 돌아왔다. 그는 정통신앙을 고수하면서 아리우스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을 받아 325년 1차 니케아 범종교회의에 참석했다. 자신의 교회로 돌아온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단에 대해 싸우며 성도들을 목양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언제 그가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345년이나 352년 12월 6일에 소천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그를 기념하는 날을 12월 6일로 지키고 있다.

### 니콜라스의 명성

이러한 니콜라스의 소문과 명성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자들의 심정에 남아 있었다. 그런 가운데 1071년 비잔틴 제국 황제 로마누스 4세(Romanos IV Diogenes, 1068~1071)는 셀죽 투르크족과 전투하여 대패하면서 그들에게 미라 지역을 빼앗기도 한다. 하지만 1차 십자군운동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인물인 황제 알렉시우스 1세(Alexios I Komnenos, 약 1048~1118) 때 니콜라스가 목회했던 미라를 셀죽 투르크족으로부터 회복했다. 이때부터 그곳에 있던 니콜라스의 무덤은 순례자들의 주요한 장소가 되었다.

1087년 봄 이탈리아 바리(Bari) 출신의 해상인은 니콜라스의 뼈가 보관된 교회에 몰래 침입하여

흙칠고 소문으로 흩어져 있다는 그의 뼈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뼈들을 1차 십자군운동 때 베네치아로 가져와 바리 교회(San Nicolò al Lido)에 안치했다고 한다. 매년 12월 6일이 되면 바리의 항해자들은 그의 동상을 들고 대성당에서 바다까지 행진을 하여 그가 바다에 복을 빌고 안전한 항해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1066년 영국 정복, 즉 노르만 정복을 위해 떠나기 전 윌리엄 1세(William I, 약 1028~1087)는 니콜라스에게 성공 원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12월 6일 저녁에 어린이들은 그를 기념하여 선물들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게임을 종교개혁에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은 금지시켰다.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12월 25일 성자들을 기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니콜라스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은 약화되었다.

### 니콜라스에서 산타클로스로

이제는 니콜라스를 기념하면서 행하던 일들이 산타클로스로 둔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탄절, 즉 12월 25일에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 마틴 루터도 이에 동참했다고 한다. 그는 성자들을 기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아이(Christkind)로 수정하여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하지만 곧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성자 니콜라스를 떠올렸다. 그러다가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야만 했던 어느 영국인들에 의해 니콜라스의 날을 12월 25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다. 성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안 그들은 12월 25일을 아빠 성탄절(Father Christmas; 산타클로스) 또는 옛 사람 성탄절(Old Man Christmas)로 바꾸어 사용했다. 이것은 영국 중세시대에 들던 이야

기들을 종합하여 가공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빅토리아 시대(1837년 6월 20일~1901년 1월 22일)에 이르러 아빠 성탄절이 '기분 좋은 날'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부추겼던 것은 1843년에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4~1870)가 쓴 『성탄절 노래』(*A Christmas Carol*)에 나오는 삽화를 그린 존 리치(John Leech, 1817~1864)의 '성탄절 선물 정신'(*Ghost of Christmas Present*)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두쇠 스크루지(Scrooge)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이런 유흥은 영국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산타클로스가 페레 노티마헬(Père Noël; 아빠 성탄절)이라 불렸다. 또 덴마크에서는 케르스만(Kerstman, 성탄절 사람)이라 불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선물을 주는 자가 황금 머리카락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의미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시기 선물을 주는 자를 크리스 크링커(Kris Kringle)라 불렀다. 미국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은 니콜라스의 옛 이야기들을 한데 합쳐 크리스 크링거와 니콜라스를 진터클라스(Sinterklaas)라 불렀고 이것이 지금의 산타클로스(Santa Claus)라는 이름이 되었다.

### 산타클로스의 날

여러 국가에서 특별히 유럽에서는 니콜라스의 날을 12월 6일로 지낸다. 홀란드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어린이들은 차꼬나 신발을 12월 5일 마련하여 선물이 가득 차기를 기대한다. 진터클라스가 타고 다니는 말(horse)을 위해 신발에 조금의 건초나 당근을 넣어두면 그것이 달콤한 사탕으로 변한다고 상상하도 한다.



니콜라스가 목회한 '미라의 교회'

이러한 분위기를 잔뜩 부추긴 것은 1823년 유명한 시, 산타클로스 방문(A Visit from St. Nicholas) 또는 성탄절 전날 밤이었다!(T'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와 같은 시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후에 크레먼트 클락 무어 박사(Dr. Clement Clarke Moore, 1779~1863)는 이 시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아내의 먼 친척은 헨리 리빙스턴 주니어(Henry Livingston, Jr., 1748~1828)가 썼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시는 8마리가 이끄는 순록을 탄 니콜라스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1949년 빨간코를 가진 순록 루돌프(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라는 노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루돌프가 실제로 암컷이었을까? 암컷 순록은 겨울 동안 빨을 보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수컷 순록들은 겨울에 자신들의 빨을 버리는데 그 이유는 봄에 새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루돌프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인 셈이다.

영국의 아빠 성탄절과 미국의 산타클로스는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금은 같은 이야기로 가공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산타가 북극에 살았다고 하고, 핀란드에서 그들은 라플란드(Lapland)라 불리는 지역에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순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가로 지른다고 보고, 밤에 집집마다 굴뚝에 내려 성탄절 나무 곁에서 잠든 어린이들의 침대 옆에 걸려 있는 또는 화로에 걸어둔 양말에 선물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성탄절 전 날 또는 니콜라스 전 날에 선물을 받는다. 어떤 국가에서는 12월 5일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니콜라스가 양말에 금이 든 주머니를 넣는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이것은 성탄절 양말 끝에 달린 진홍색이 온 배경이기도 하다. 만일 금을 받지 못했다면 금으로 된 열매를 대신하여 값비싼 상품을 두기도 한다. 아무튼 지난 50년 간 특별한 열매들이 되었다. 가장 큰 성탄절 양말은 51m 35cm의 길이와 21m 63cm의 폭이 되는 크기였다. 2011년 1월 5일 이탈리아 투스카

니 지역의 카라라의 어느 상점에서 만든 것이었다.

### 작금의 산타클로스에 대하여

산타클로스는 니콜라스를 존경하는 영국 성공회에서 시행되는 것에 근거한다. 이 축제는 단순히 어린이들이나 선물을 준다는 것에 출발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를 둔갑하여 작금에 이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름을 날리려고 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산타클로스를 점차적으로 눈덩이처럼 가공되었다.

이런 허상에 근거한 산타클로스의 날은 성자 숭배사상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청교도와 개혁신앙인은 산타클로스만 아니라 성탄절까지도 반대하였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교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 받기 위해 가공된 산타클로스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이고 능란한 상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성탄절에 대한 관용은 1660년 왕정복고가 이뤄졌을 때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2세기 동안 뉴잉글랜드에 살던 청교도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오히려 새해(New Year)를 더 중요시 했다. 그 이후 많은 자들은 성탄절에 시행되는 산타클로스 행사를 거절한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을 반대한다.

작금의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된 성탄절은 상술의 대명사가 되었다.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조장하는 연말행사가 되었다. 산타클로스가 붉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에 반해 영국에서는 아파 성탄절에 녹색 망토를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붉은색에 식상한 자들이 대중을 기만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붉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산타는 코

카콜라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악용하여 돈을 가로 채려는 악덕 상술에 더 이상 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전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절대 악이 없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건전한 활동과 유희를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노약자를 돕는 것은 교회나 개인이 행해야 하는 임무라 여긴다. 하지만 여기에 산타클로스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 성자 숭배의 명령을 불러일으켜선 더욱이 안 된다. 새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사를 드리거나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격려되어야 하지만 실제 인물을 가공인물로 둔갑시켜 상술에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95개 항목'이 10월 31일로 여기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날이 할로윈의 날(Halloween Day)라 불려 악마의 날이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 루터파가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 항목을 붙였고 1717년에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바른 것이 아니기에 대중을 기만시켜선 안 된다. 순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도록 건전하고 성경적 방법을 교회는 제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12/2일자 발행)



글 | 라은성

고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수료하였다.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와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에서 Th.M.을 수료하고, University of Pretoria 에서 Ph.D.공부를 마쳤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재직중이다.